

지역 소식통

부안 상서면 의용소방대  
감염 확산방지 긴급방역

부안군 상서면 남상 의용소방대(대장 송장호)는 부안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다음날인 10일 상서면 32개소 경로당을 비롯하여 농협, 우체국 등 다중이용시설과 송장강 등 감염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긴급방역을 실시하였다.

이번 방역활동은 그간 코로나19 청정지역이었던 부안군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긴급 방역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더 이상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이후로도 수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송경에 상서면장은 "상서면 의용소방대가 발빠르게 자발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해주어 너무도 감사한다"며 앞으로 지역 사회 감염이 확산되지 않게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상서면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농기센터, 과학영농  
농가 경비 절감 기대감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는 농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과학영농에 앞장서고 있다. 불가사리자원화센터에서는 불가사리 액비(이하 상표명 '불갑')를, 미생물배양센터에서는 미생물 액비(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복합균 5종)를 농가에 보급중이다.

새 기술실증시범농장(상서면 내면산로 1840-7)에 위치하고 있는 불가사리자원화센터와 미생물배양센터는 연간 4억여원을 투입하여 불가사리 액비 130M/T, 미생물 액비 150M/T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50여억원의 농가 경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불가사리 액비는 부안군 앞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를 수거한 후(2020년 불가사리 70톤 수거)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액비화한 것으로 부안군의 해양과 어가들의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등 여러 도움을 주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 동우팜투테이블, 고창산단 입주 가시권

## 최첨단 악취저감 장비도입, 분리형 컨테이너 사용 등 '엄격한 환경설비' 약속

국내 최고의 닭고기 가공 전문기업 동우팜투테이블이 고창일산단 입주 가시권에 들어왔다. 특히 육가공 공장 운영에 따른 환경문제 등 산단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주)동우팜투테이블은 입주계약과 착공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가고 있다. 특히 육가공 공장 운영에 따른 환경문제 등 산단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앞서 고창군과 주민들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청정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업체 측에 타 지역보다 더 엄격한 환경설비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주)동우는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최첨단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 도입을 약속한 상태다. 여기에 공장주변에 악취와 먼지로부터 마을과 도심부 유입을 막는 차폐 숲을 만들기로 했다. 또 닭을 실어 나르는 생계차역시, 닭털과 계분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제작한 분리형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야간에 운행할 방침이다.

폐수는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으로 정화한 후 방류해 농업용수로도 사용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방류수 수질은 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간 감복하게 된다.



고창군과 주)동우팜투테이블은 지난 4월 투자협약 이후, 입주계약과 착공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가고 있다.

중견기업인 동우는 외국인 직접 고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역내 650명 이상의 청년은 물론, 중·장년, 여성 일자리가 생겨나 인구증대·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고창일산단단지에는 여러 투자유치 기업들이 공장을 착공하며 활력이 되고 있다. 수년간 풀밭으로 변해 군민들의 마음을 애타게 한 아픈 손가락이 대한민국 대표 식품전문산단단지로 거듭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말 친환경 쌀 생산 기업인 '한결영농조합법인'의 친환경 쌀·현미 가공공장이 첫 삽을 떴고, 고구마 가공업체 '고창황토배기 청정고구마' 연합 영농조합법인도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 건축자재 생산기업인 '금해산업'은 지난 5월 착공해 제품 생산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내년 상반기 투자기업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가동이 본격화되면, 12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수성근린공원 정비 필요 제기 조상중 정읍시시장 도비 확보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장이 "정읍시의 숙원사업인 수성근린공원 시설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비 3억원의 예산확보를 이루려 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지난 11월 13일 전라북도청을 찾아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하여 김용만 지치행정국장, 김인태 환경녹지국장, 한근호 예산과장을 잇달아 방문하여 정읍 수성근린공원 시설정비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하였다.

수성근린공원은 주변에 아파트 5,000여 세대와 원룸 1,000여 세대 등 상주 인구 2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도심 속의 접근성이 뛰어나 다양한 연령층의 휴식 운동, 모임 등 정읍시민의 힐링 공간이자, 주민의 소통과 공감의 장과 더불어 정보 교류의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1995년 조성되어 노후화로 인한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기관표창

### '3관왕' 영예... 시민건강증진·보건의료 향상기어

정읍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전라북도 기관 표창 3관왕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시는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개별 2개 분야 사업(금연사업, 비만 예방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해 시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게 통합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계획,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위를 선정했다.

시는 2019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시민 건강 걷기 활성화 사업'을 선정해 중요한 건강지표인 걷기실천을 향상을 목표로 건강 걷기 행사와 모바일 앱 워크온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걷기실천율이 2018년도 33.8%에서 2019년도 58.1%로 전년 대비 24.3% 증가하며 전라북도 37.7%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기반

으로 원광대학교 전북금연지원센터와 연계해 주민들의 흡연을 감소와 흡연자의 금연 시도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금연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이 2018년도 18.0%에서 2019년도 42.8%로 전년 대비 24.8%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시는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통합건강캠프'도 운영했다. 통합건강서비스로 금연과 절주,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등을 추진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상담과 건강생활 문화 확산·실천을 유도한 점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영창아파트 앞 오거리 교통 상습 정체 구간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정읍시, 영창아파트 앞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정읍시가 지역 내 교통 상습 정체 구간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시는 영창아파트 앞 오거리의 기존 신호등 교통체계를 회전교차로 체계로 변경했다고 11일 밝혔다.

영창아파트 앞 오거리는 국도 1호선을 통해 시내로 진입하는 통행 차량이 많고, 신호위반이나 과속운행으로 인해 잦은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또 불필요한 신호대기로 교차로 지체가 악화됨에 따라 교차로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수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시비 5억원을 투입해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 후 최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이번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통행 시간 단축과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도로 이용 편의성 향상은 물론 신호 대기시간 감소에 따른 차량 배기가스 감소와 유지관리비 절감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상하 고리포 '어촌뉴딜300 사업' 선정

조선시대 봉수대가 있던 정겨운 포구마을 전북 고창군 상하면 고리포 일대에 해안산책길과 전망대, 수상낚시체험장이 들어서 해양관광 거점지역으로 조성된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에 상하면 고리포 일대 마을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3년 연속(2018년 동호항, 2019년 죽도항·광승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상하면 고리포는 조선시대 봉화를 올렸던 고리포 봉수대가 있었던 포구로 알려져 있다. 현재 고창지역 포구 중 유일하게 위치가 옮겨지지 않고 원형이 유지되고 있어 정겨움을 더한다. 이번 고리포 어촌뉴딜의 주제는 '노을 속 잔잔한 섬, 자연스런 웃음의 휴양지'로 정해졌다. 2023년까지 국비 등 약 100억원을 투자해 해안노을길, 노을전망대, 갯벌체험장, 수상레저체험장(무동력페달보트, 뗏목체험) 등이

만들어진다. 또 고리포봉수대를 복원해 마을의 역사성을 부각 시키고, 마을내 체험센터 등을 건립해 공동체 수익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군은 차로 10분 거리인 구시포 해수욕장, 상하농원을 연계해 해양관광 광벨트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모래밭 요가, 노을명상, 숲체험 등 도시민들이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출시하면 참해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